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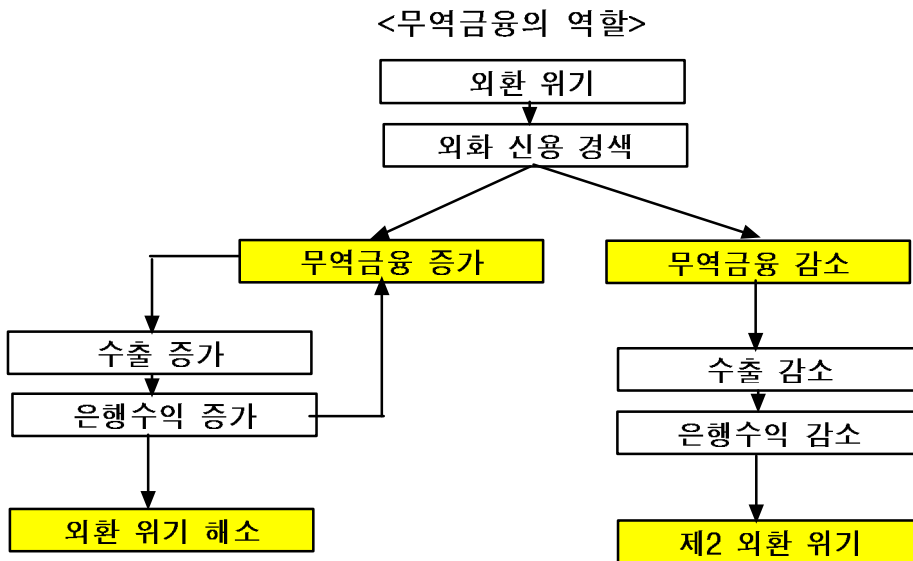
3.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현황 및 전망

□ 무역금융의 개념 및 활용 실태

98년에는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독려로 은행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. 반면 외화 부족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이나 수입신용장 개설 등 외화금융지원은 부진

- 무역금융의 개념 및 역할

- (개념) 중소기업 및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이외의 대기업이 의존하는 수출금융으로 상품 수출의 지원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지원을 위한 금융으로 이루어짐
- (역할) 수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. 즉 은행이 무역금융의 지원을 증대함에 따라 기업의 수출이 늘어남으로써 은행 수익은 더욱 증대할 수 있지만, 반대의 경우에는 수출 감소를 악화시켜 결국 경제의 회생을 지연시킬 것임



-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 실태

- 총액대출한도를 3조 6천억 원에서 7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5%에서 3%로 2%p 인하하였음
- 애니메이션, 영화 등 용역수출을 용자대상에 포함(98년 10월),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 용자대상 제한 철폐(98년 10월), 완제품 구매자금 신설(98년 10월), 유희설비 수출에 대하여도 무역금융을 지원(98년 12월)하는 등 무역금융 용자대상 확대

-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 조치

-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재원 확충 : ADB 및 IBRD 차관자금 각각 10억 달러씩 총 20억 달러 출연, 정부예산 1조 7,000억 원 출연(수출보험공사 4,000억 원 포함)
- 신용보증기금(기술신보 포함)의 보증지원 강화 : 무역금융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종전 연간 매출액의 1/3에서 1/2로 확대(98.8.20), 무역금융 보증대상기업을 종전의 중소기업에서 1~30대 계열 기업외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(98.8.20)
-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지원 강화 : 업체별 무역금융 보증한도를 종전 20억 원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, L/C수취기업에 대하여는 전액 보증(98.7.1), 1~30대 계열대기업이 발행한 무역어음에 대하여 신용보증(98.8.24)

- 98년 무역금융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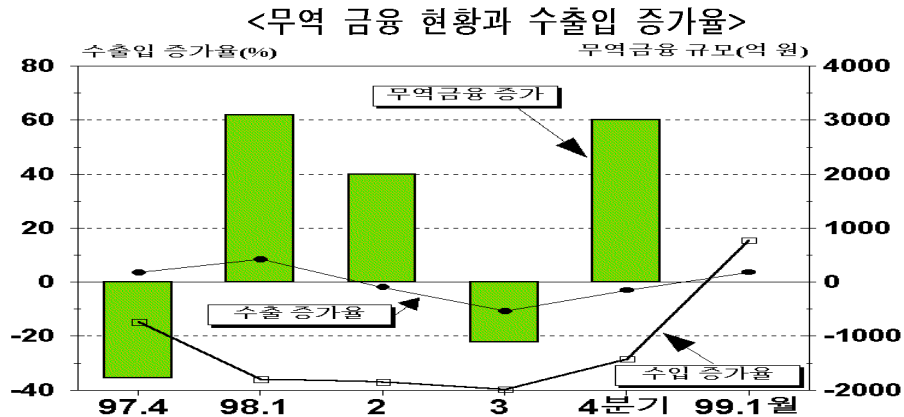
- 무역금융실적은 경기 침체 및 신용 경색으로 지난해 8월까지의 감소했으나 지난 9월 이후 경기 회복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독려로 규모가 크게 증가
- 반면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외화 부족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이나 수입신용장(LC)개설 등 외화금융지원은 여전히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음
- 99년에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수출입금융 지원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

□ 무역금융과 수출 실적과의 관계

무역금융 지원이 증가할 경우 수출 실적도 증가.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금융은 프라임레이트 이하로 적용되는 정부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

- 무역금융 지원이 증가할 경우 수출 실적도 증가되며, 반대로 무역금융 지원이 감소할 경우에는 수출 실적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
- 특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인 98년 4/4분기의 무역금융이 크게 증가했던 점을 볼 때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증가율간에는 정(+)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
- WTO 유권해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의 무역금융은 프라임레이트 이하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이 아님. 그러므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금융 지원의 확대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임



- 98년중 무역금융 증가 추이중 특히 10월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
- 이는 한국은행이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9월의 총액한도 대출 금리인하 및 한도확대에 이어 10월 중에는 무역금융 용자기간 자율화, 용자 대상 범위 확대 등 무역금융 확대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임
- 또한 9월말까지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은행들이 무역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데 주로 기인함

□ 99년 전망

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에 따라 대외 여건이 매우 불안정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수출도 불안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의 무역금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함

- 99년에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에 따라 대외 여건이 매우 불안정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수출도 매우 불안할 것으로 전망됨. 따라서 정부의 무역금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함
- 그러므로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한 일환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은 계속 늘일 것으로 예상됨
- 정부는 99년중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늘리고(98년 7조 1천억원 → 99년 10조 3천억원) 산업은행의 무역어음 할인재원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임
-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도가 향상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이 보다 용이해지고 금리 등 차입 조건도 유리해짐으로써 수출환어음 매입 및 수입 L/C 개설 등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화금융 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(천 일 영 iycheon@hri.co.kr ☎724-4013)